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THE PATTERN OF FURNITURE USAGE OF APARTMENT DWELLERS IN SEOUL

김 미 희*
Kim, Mi-H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urniture usage behavior of the apartment dwellers in the city of Seoul and explores the pattern of furniture usage by resident's characteristics, such as floor space size, household income, the stage of family life cycle and housewife's age. To this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04 individuals, either household heads or their spouses living in three residential areas in Seoul. The sample was selected among people living in apartment units with the 30s and 40s *pyong* of floor space siz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furniture and furnishings selected for the study are grouped into four clusters such as conversation-space components, ordinary decoration, high-quality decoration and miscellaneous components. Families in the stage of primary school life cycle were likely to possess fewer furniture and decorations than those in the stage of high school life cycle and in the launching stage. Younger housewives are less likely to possess ordinary and high-quality decorations than the older. Those living in the larger apartment units are likely to decorate their living room in an ornamental rather than functional way, and to possess more ordinary and high-quality decorations than those in the smaller. In this study, the size of floor space appears a variable most powerful to explain the pattern of furniture usage.

I. 서 론

주생활에 대응하는 주거공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생활양식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주거환경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체계인 생활양식을 주생활양식이라고 볼 때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주거공간의 이용방법을 통하여 표출되며, 간접적으로는 공간의 구성형태, 재료의 사용, 가구 및 설비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김미희, 1992).

주공간에서 가구의 선택과 꾸밈형태는 가족들이 그들의 주거환경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 정희원,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수단이 되며, 그 자체의 모습과 특성에 의해 생활상을 비언어적이면서 동시에 행위에 근거해서 보여주는 의사전달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주거와 가구 설비는 소유주의 주된 정체성을 표현하고 상징화하는데 사용되며 (김영주, 1992; Human, 1989; Weisner and Weibel, 1981),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성표현(신영숙, 1992)이거나 개인화의 결과이기도 하다(Altman and Chemers, 1980). 사회학자들은 주생활양식을 소비유형으로 간주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개념을 이러한 생활양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 소비의 행태로서 거실의 가구사용 및 장식스타일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표상으로 증명하려는 연구들을 시도해 왔다(Laumann and House 1970; Amaturio et al. 1986; Bonnes et al. 1987).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주거공간이 거주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하거나 사용상의 편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조변경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이 양적인 증가에 비하여 질적인 측면이 뒤떨어져서 주거평면이 다양하지 않고 거주자의 주생활의 요구 및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다수를 위해 계획되어야 하는 아파트는 사용자의 계층적 특성, 다시 말하자면 직업, 소득, 가족구성특성, 연령 등의 거주자 특성에 대응한 평면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특히 주택유형으로 그 점유비율이 커져가고 있는 아파트에 있어서 그 입지와 평수에 의해 거주자의 지위가定型化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므로(홍두승·김미희, 1988) 평면규모나 거주지역같은 변인에 따른 주생활요구의 차이가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30평형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실의 가구사용행태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의미있게 특성지울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이러한 가구사용행태와 사용자의 계층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계층적 특성에 따른 가구

사용행태를 규명함으로써 거주자 집단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속성과 주요구에 대응하는 평면 계획 및 실내디자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대상의 평면규모는 사회경제적 변인을 차등화하여 표집하고 다양한 주생활 및 가구사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3침실형인 분양면적 31-35평형과, 4침실형인 분양면적 44-48평형으로 설정하였다.1)

II. 이론적 배경

여러 사회학자 및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격을 표출하고, 개인이나 사회의 목적을 촉진시키거나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상징화하는 방법을 통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의 물질적 인공물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중요성을 언급하였다(Laumann and House, 1970). 이는 베블렌(Veblen 1953)의 유한계층이론²⁾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한 사회에서 여가와 소비는 점점 개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소비의 스타일은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을 주장하거나 확인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Berger et al. 1974; Human 1989)고 주장한다. 휴먼(Human 1989)은 현대사회에서 주거가 의미있는 물건과 환경으로서 정체성을 정의하고 전달하는 비언어적 상징이 되는 여러

1) 예비조사시에는 평면규모를 10평형대, 30평형대, 50평형대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나 10평형대에 조사 대상 공간인 거실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50평형대는 선정된 거주지역인 노원구, 도봉구 지역의 최대 평면 규모가 45평이었기 때문에 세 지역의 동일조건으로 맞추기 위하여 40평형대로 하향조정하였다.

2) 유한계층이론: 유한계층과 근로계층간의 지위적 행동(status behavior)을 해석하는데 특별히 시간과 물품의 과시적 소비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법들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과정들이 어떻게 주거와 정체성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강조점을 두고자 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신의 주택을 자기표현의 매개물로 이용하며 그러한 행위는 거주환경을 개인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알트만과 셰머(Altman & Chemers 1980)는 주택의 사적(私的) 공간 내에서 환경의 개인화는 장식, 가구의 선택, 공간의 차이를 통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신영숙(1992)은 공간의 개조행위와 실내의장의 특성이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이용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주택의 실내는 소비양식의 중요한 지표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상징하고 사회적목표를 추구하는데 사용된다. 아마투로 등(Amaturo et al. 1989)은 이러한 배경하에 소비의 과정에 연루되는 사회학적 변인들을 계량화 하기 위하여 가정의 가구장식모형과 사회계층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거실의 가구 장식 유형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유형 분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범주는 소유물품의 경제적 가치와 그것이 조직정리되는 방법이었다. 또한 특정한 유형에 대한 선호는 지위, 수입 중 어느 한가지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보다 영향력 있는 변인은 지위 불일치 변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베블렌(1953)이 오래 전에 주장했듯이, 여가와 소비가 사회적 등급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메카니즘으로서 점차 중요하게 되어가는 사회에서 주택과 주거의 물품들은 단순한 기능이나 가격의 차이를 넘어 양식화되고, 세련되며 점차 분화되어 각 사회적 등급의 복잡한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주거문화연구회, 1994).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가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집합주택 거주가구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 평면형은 선행연구(함상우 1986; 조성희이경희 1987; 김정규 1988; 백혜선 1990; 조성기김현수 1990)의 평면형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유사한 평면형을 선정하여 평면형의 차이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조사대상 아파트의 평면형의 특성은 1980년도 이후에 건설된 것으로 출입통로 형식이 계단식이고, 전면실구성방식이 3침실형인 경우는 1R+L인 경우로, 4침실형인 경우 2R+L인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거실 식당 부엌의 구성방식은 거실이 별개의 공간으로 독립되고 부엌과 식당이 한 공간에 배치되는 L-DK인 경우로 제한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대상공간은 주거공간 내부 중 거실로 국한하였다.

2) 표집방법

서울시 지역은 지가에 따라 3개의 층으로 층화시킨 다음 각 층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3개의 지역(강남구서초구, 양천구, 노원구도봉구)을 선택하고 다시 각 지역을 평면규모별로 두 집단(3침실형:31-35평, 4침실형:44-48평)으로 나누어 모두 여섯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아파트 선정은 아파트백과를 참고하여 정해진 평면 유형에 한하여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표집결과 총 304가구가 선정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조사도구

가구사용행태는 주생활양식의 하위개념으로서 거주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내공간의 시각적 환경물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가구디자인의 특성, 장식스타일등의 꾸밈형태와 소유물품을 통하여 표출된다. 이에 대한 조사도구는 거실의 가구 및 장식품의 소유물품에 대한 목록을 구성하되 가구 및 장식품의 종류는 단순한 소유여부만 아니라 내용의 특성을 분류하고 꾸밈

형태는 장식스타일과 가구배치태도 등을 포함시켰다. 이 도구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이연숙, 김미희외 3인, 1990)를 참고로 하고 라오만과 하우스(Laumann and House, 1970), 아마투로 등(Amaturo et al., 1986)의 거실 장식스타일에 대한 도구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직업분류를 근거로 하여 먼저 비율이 적고 표집이 어려운 상류층은 제외하고 도시거주자들이 분류대상이 되는 중상계층,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 등의 3개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은 최저 59만원 미만부터 최고 550만원 이상까지 분류하고 그 간격은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딸자녀의 연령과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딸자녀 연령이 12세 이하이거나 학력이 국민학교 이하인 경우는 초등교육기로, 딸자녀연령이 13세-18세 이거나 학력이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중등교육기로, 딸자녀의 연령이 19세 이상이거나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 자녀독립기의 세단계로 분류하였다.

3.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의 시기는 1991년 7월 4일부터 7월 15일에 걸친 12일간 주거학을 전공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사전교육을 받은 열명의 학생들이 담당하였다.

분석기법은 첫째, 가구사용행태에 대한 실태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가구와 꾸밈품목에 대한 보유빈도를 살펴보고 이 중 23개 품목을 선정하여 집락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거주자특성에 따른 가구사용행태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가구 및 꾸밈형태의 집락과 가구사용태도를 거주자 특성과 교차분석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세대주의 성별, 세대주의 직업계층, 부인의 연령, 남편의 학력, 부인의 학력, 가족생활주기, 가구소득, 거주년수 등을 살펴보았다. 세대주의 성별은 98.7%가 남자였고, 세대주의 직업계층을 보면 중상계층이 43.8%, 신중간계층이 44.4%, 구중간계층이 11.8%로 나타나 조사대상지역의 직업은 대부분이 신중간계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을 보면 평균연령은 41세이고 35세-39세가 28.0%, 40세-44세가 2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부의 학력을 보면 남편의 경우 대학이 66.8%, 대학원이 25.6%로서 대학 이상이 92.4%로 대부분이었고, 부인의 경우도 대학이 59.4%로 고학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구는 남편은 학력이 90% 이상이 대학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변수에 있어서 세대주의 학력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가정생활주기는 딸자녀의 학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초등교육기가 3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등교육기인 34.6%, 자녀독립기인 28.3%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주기의 단계가 고르게 표집되었다. 가구소득은 평균 217만 7천원이었고³⁾ 120-179만원이 30.6%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80-239만원으로 26%였으며, 330만원 이상이 12.2%나 된다. 조사대상자 가구의 거주년수는 평균 3년 8개월 정도였다. 이들 변수의 범주들은 교차분석을 하기 위하여 이동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재조정되었다.

2. 가구사용행태의 실태와 구조

가구사용행태는 거실의 가구 및 꾸밈특성과 가구배치에 대한 태도 및 소파배치형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거실의 가구 및 꾸밈특성의 분포는 <표 1>과 같으며 거실에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품목은 시계와 TV 등이었고 80% 이상-90% 미만 보유 품목은 장식장, 돛자리, 큰 화분류, 비디오세

3) 199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 8천원 정도였다.

트, 도자기, 현대적 유형의 소파 등이었으며, 70% 이상-80% 미만 보유품목은 오디오세트, 작은 화분류, 카렌다, 동양화, 가족사진, 일상보는 책, 액자(글씨), 실용적 목적의 커튼 등 이었다. 그 다음은 보유비율이 낮아져서 실용적 목적의 카페트 49.0%, 현대적 입식탁자 48.0%, 에어컨

41.4%, 서양화 40.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실가구 및 설비품목을 어떤 형태로 묶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집락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집락분석은 유사한 요소를 같이 묶고 상이한 요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기법이라 말할 수 있다(홍두승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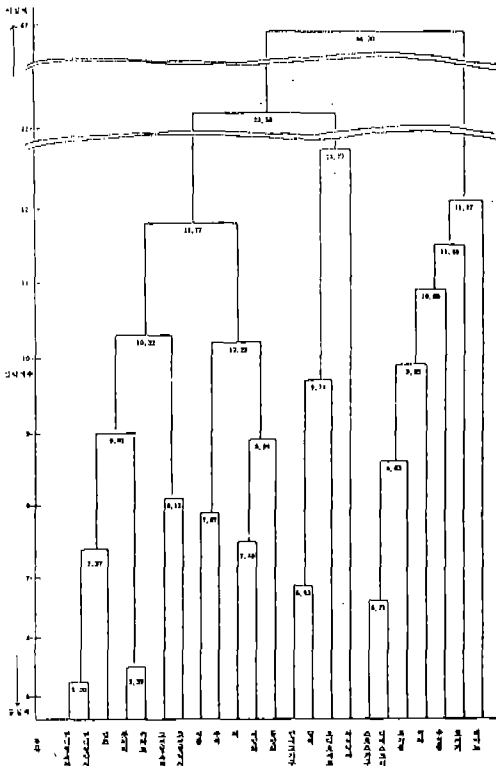
<표 1> 거실의 가구 및 꾸밈의 분포 (N=304)

품 목	분 포 N(%)	품 목	분 포 N(%)
시계	298(98.0)	책장	99(32.6)
TV	288(94.7)	피아노	95(31.3)
단순한 천정등	256(85.5)	조각품	93(30.6)
장식장	259(85.2)	실용적 스탠드램프	93(30.6)
돛자리	250(82.2)	고전적 입식탁자	91(29.9)
큰 화분류	246(81.9)	좌식탁자	88(28.9)
비디오세트	247(81.3)	장식적 커튼	86(28.3)
도자기	245(80.6)	수족관	83(27.3)
현대적 소파	244(80.3)	수집품류	68(22.4)
오디오세트	242(79.6)	분재	66(21.7)
작은 화분류	242(79.6)	스포츠용 기구	51(16.8)
카렌다	233(76.6)	장식적 스탠드램프	48(15.8)
동양화	229(75.3)	타페스트리	44(14.5)
가족사진	228(75.0)	장식적 카페트	43(14.1)
일상 보는 책	223(74.4)	고전적 소파	42(13.8)
액자(글씨)	226(74.3)	장식적 플로어램프	40(13.2)
실용적 커튼	214(70.4)	정교한 천정등	39(12.8)
실용적 카페트	149(49.0)	실용적 플로어램프	29(9.5)
현대적 입식탁자	146(48.0)	의자	25(8.2)
에어콘	126(41.4)	컴퓨터세트	23(7.6)
서양화	124(40.7)	책상	7(2.3)
책(전집류)	117(38.5)	오르간	6(2.0)
한국 고가구	107(35.2)	벽난로	1(0.3)
수석	104(34.2)		

본 논문에서는 집락분석의 여러 기법 가운데에서 위계적 집락분석의 기법을 사용하였다.4)

집락분석에는 23개의 거실의 가구 및 설비품목이 이용되었다. 이는 <표1>의 거실가구 및 꾸밈품목분포에서 90% 이상인 것과 10% 이상인 것은 제외하고, 특성이 비슷한 품목들은 통합하여 이용하였다. 거실가구 및 설비품목들에 대한 위계적 집락분석을 실시하여 나무그림을 그려보면 <그림1>과 같아진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수치는 집락화가 이루어지는 상사성(유사성)계수이다. 수치가 보다 작을수록 집락간의 유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면

4) 이 기법은 집락화를 개별단위에서 시작하여 이클 집단으로 지속적으로 묶어나가 마지막에는 모든 개별 단위들이 하나의 큰 집락울 이루는 방법이다. 집락분석에서는 변수를 기준으로 사례간의 근접성을 측정하여 분석하게 된다. 집락분석을 위해서 먼저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를 구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으며 집락화의 방법으로는 단순연결법(simple linkage)을 이용하였다.



<그림 1> 집락분석을 통한 23개의 거실가구 및 꾸밈특성의 나무그림

현대적 소파와 현대적 탁자가 가장 먼저 묶이며 그 다음에는 돛자리와 카페트가 묶이며 스포츠기구, 타페스트리가 묶이고 한국고가구와 달력이 묶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대형소파에 램프가 묶이고, 돛자리, 카페트가 묶이고 고전형소파와 탁자가 묶인다. 또한 조각품이 스포츠기구에 묶이고 단계적으로 액자가 묶이고, 수집품이 묶이고 피아노가 묶인다. 또한 식물과 수석이 묶이고 책과 서양화가 묶이며 이어서 동양화가 묶인다. 그 다음은 이 두 집락이 하나로 묶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모든 집락이 하나의 큰 집락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묶일수록 집단간의 이질성이

높다.5)

집락계수 11.5 수준에서 보면 현대형소파, 현대형탁자, 램프, 돛자리, 카페트, 고전형소파, 고전형탁자가 하나의 집락을 이루고, 식재, 수석, 책, 서양화, 동양화가 하나의 집락을 이루어 한국고가구, 달력, 오디오세트가 하나의 집락을 이룬다. 또한 스포츠기구, 타페스트리, 조각품, 액자, 수집품, 도자기 등이 하나의 집락을 이루며 좌식탁자, 피아노 등은 별개의 집락으로 묶이게 된다. 이상의 각 집락을 구성하는 가구 및 설비품목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고, 집락1은 '대화공간구성물'이라 명칭을 붙이고 집락2는 '일반장식품'이라고, 집락3은 '고급장식품'으로 집락4는 '기타공간구성물'이라 명칭을 붙였다. (표2 참조) 좌식탁자와 피아노 등의 개별적인 집락은 집락화에서 제외하였다.

가구 및 꾸밈형태는 크게 네 개의 집락으로 묶여짐을 규명하였다.

<표 2> 거실가구 및 꾸밈의 집락화^{a)}

집락	가구 및 설비품목
집락1: 대화공간구성물	현대형소파, 현대형탁자, 램프, 돛자리, 카페트, 고전형소파, 고전형탁자
집락2: 일반장식품	식물, 수석, 책, 서양화, 동양화
집락3: 고급장식품	스포츠기구, 타페스트리, 조각품, 액자, 수집품, 도자기
집락4: 기타 공간 구성물	한국고가구, 달력, 오디오세트

a) <그림 1> 나무그림을 근거로하여 집락계수 11.50을 기준으로 한 것임.

다음은 거실의 가구 및 꾸밈의 배치태도와 소파배치형태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 및 꾸밈을 배치하는 것이 실용적 기능을 위한 것인지 장식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지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 및 꾸밈의

5) 집락분석은 연구자가 어느 수준에서 집락화를 멈추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그 수준에서 묶여진 집락들은 의미를 갖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그림의 상사상계수는 그 자체로 통계적 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배치태도를 살펴보았더니 응답자의 77.3%가 실용적 기능을 중시하여 가구 및 꾸밈을 장식했고 장식적인 목적이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7%였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가구배치를 할 경우 대부분이 실용적 목적을 장식적 목적보다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파배치형태가 L자인지 일자형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소파배치형태를 도면화하여 제시하여 조사한 결과 L자형 배치는 49.3%로, 일자형

배치는 50.7%로 고르게 나타났다.

3. 거주자특성별 가구사용행태

가구사용행태는 거주자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된 네개의 집락과 가구배치태도를 거주자특성과 교차분석을 하였다.

거주자특성과 가구 및 꾸밈집락간의 관계를 각 변인들로 살펴보기로 한다.

평균규모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가구 및 꾸밈집락은 고급장식품 뿐이다. 평균규모별 고급장식품의 차이검정결과는 <표 3>과 같으며 40평형대집단이 30평형대집단에 비하여 고급장식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평균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많으므로(김미희,1992: 부록 II-2참조) 고급장식품을 보유할 가능성이 많기 때

<표 3> 평균규모별 고급장식품의 보유현황

응답범주	4침실형 (44-48평) f(%)	3침실형 (31-35평) f(%)	전 체 N(%)
하 ^{a)}	23 (15.3)	44 (28.6)	67(22.0)
중	60 (40.0)	54 (35.1)	114(37.5)
상	67 (44.7)	56 (36.3)	123(40.5)
계	150 (100.0)	154(100.0)	304(100.0)
통계값	$\chi^2 = 8.13$ $df = 2$ $p < .01$		

a) 응답범주 상, 중, 하는 거실가구 및 꾸밈의 4개의 집락들에 대한 보유비율을 의미하며 보유비율이 높으면 '상', 낮으면 '하'로 구분하였다. (표3-표6)

<표 4> 가구소득별 고급장식품의 보유현황

응답범주	120만원 미만 f(%)	120-180만원 미만 f(%)	180-240만원 미만 f(%)	240만원 이상 f(%)	전 체 N(%)
하	12 (25.5)	26(28.0)	16(20.3)	13(15.3)	67(22.0)
중	24 (51.1)	24(25.8)	29(36.7)	37(43.5)	114(37.5)
상	11 (23.4)	43(46.2)	34(43.0)	35(41.2)	123(40.5)
계	47 (100.0)	93(100.0)	79(100.0)	85(100.0)	304(100.0)
통계값	$\chi^2 = 22.20$ $df = 6$ $p < .01$				

<표 5> 가족생활주기별 일반장식품, 고급장식품의 보유현황

일반장식품	응답범주	초등교육기 f(%)	중등교육기 f(%)	자녀독립기 f(%)	전 체 N(%)
	하	39 (34.5)	13 (12.4)	14 (19.4)	66(22.8)
중	38 (33.6)	33 (31.4)	17 (23.7)	88(30.3)	
상	36 (31.9)	59 (56.2)	41 (56.9)	136(46.9)	
계	113 (100.0)	105 (100.0)	72 (100.0)	290(100.0)	
통계값	$\chi^2 = 22.63$ $df = 4$ $p < .001$				
고급장식품	응답범주	초등교육기 f(%)	중등교육기 f(%)	자녀독립기 f(%)	전 체 N(%)
	하	38 (33.6)	14 (13.3)	10 (13.9)	62(21.4)
중	40 (35.4)	42 (40.0)	28 (38.9)	110(37.9)	
상	35 (31.0)	49 (46.7)	34 (47.2)	118(40.0)	
계	113 (100.0)	105 (100.0)	72 (100.0)	290(100.0)	
통계값	$\chi^2 = 17.62$ $df = 4$ $p < .01$				

문이라고 보아진다.

가구소득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실내가구 및 꾸밈 집락은 고급장식품이다. 가구소득별 고급장식품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고급장식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응답범주 '상'에서 가구소득이 가구소득 120만원 미만인 집단과 120만원 이상인 집단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급장식품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보유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가구 및 꾸밈집락은 일반장식품, 고급장식품 등

이며 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초등교육기 집단은 중등교육기, 자녀독립기집단에 비하여 일반장식품이나 고급장식품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장식품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연령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가구 및 꾸밈집락은 일반장식품과 고급장식품이다. 부인연령별 일반장식품 및 고급장식품의 보유현황은 (표6)과 같다. 대체적으로 부인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유비율이 높아지고 35세미만의 집단은 현저하게 보유비율이 낮아진다.

각 거주자특성별 가구배치도 형태의 분석내용

<표 6> 부인연령별 일반장식품, 고급장식품의 보유현황

일반장식품	응답범주	35세미만 f(%)	35-40세미만 f(%)	40-45세미만 f(%)	45세이상 f(%)	전 체 N(%)
	하	23(42.6)	20(23.6)	13(16.7)	17(19.5)	73(24.0)
중	18(33.3)	28(32.9)	26(33.3)	21(24.1)	93(30.6)	
상	13(24.1)	37(43.5)	39(50.0)	49(56.4)	138(45.4)	
계	54(100.0)	85(100.0)	78(100.0)	87(100.0)	304(100.0)	
통 계 값	$\chi^2 = 23.04$ $df = 6$ $p < .01$					

고급장식품	응답범주	35세미만 f(%)	35-40세미만 f(%)	40-45세미만 f(%)	45세이상 f(%)	전 체 N(%)
	하	24(44.4)	20(23.5)	13(16.7)	10(11.5)	67(22.0)
중	18(33.3)	39(45.9)	22(28.2)	35(40.2)	114(37.5)	
상	12(22.3)	26(30.6)	43(55.1)	42(48.3)	123(40.5)	
계	54(100.0)	85(100.0)	78(100.0)	87(100.0)	304(100.0)	
통 계 값	$\chi^2 = 33.56$ $df = 6$ $p < .001$					

<표 7> 평면규모별 가구배치태도

응답범주	4침실형 (44-48평) f(%)	3침실형 (31-35평) f(%)	전 체 N(%)
장식적배치	42 (28.8)	26 (17.0)	68(22.7)
실용적배치	104 (71.2)	127 (83.0)	231(77.3)
계	146 (100.0)	153(100.0)	299(100.0)
통 계 값	$\chi^2 = 5.24$ $df = 1$ $p < .05$		

을 살펴보면 평면규모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고 가구소득, 가족생활주기, 부인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평면규모별 가구배치태도는 <표7>과 같이 40평형대 거주자는 장식적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고 30평형대 거주자는 실용적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거실의 개념에 대한 의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40평형대 거주자는 30평형대 거주자에 비하여 거실을 접대공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으므로(김미희, 1992, 95-96쪽) 실용적인 배치보다는 장식적인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주생활에 대응하는 주공간이 형성되려면 사용자의 주요구와 가구사용행태등의 주생활양식의 구조를 파악해야하고 이를 사용자의 계층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해야한다는 시각하에 대도시 30평형대와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내가구사용행태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평면규모, 직업계층, 가구소득, 가족생활주기 그리고 부인연령 등과 같은 사용자특성과는 어떤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실의 가구및 꾸밈형태의 구조는 그 특성상 크게 대화공간 구성물, 일반장식품, 고급장식품, 기타 공간구성물 등의 네 개의 집락으로 묶을 수 있다.

둘째, 가구및 꾸밈형태의 집락 중 일반장식품은 부인연령이 35세 이상일수록, 가족생활주기가 중등교육기 이상일수록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고급장식품은 평면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족생활주기가 중등교육기 이상일수록, 부인연령이 40대인 경우가 30대에 비하여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 및 꾸밈 보유량은 가족생활주기가나 부인연령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가구배치태도는 대부분이 실용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부분적으로는 장식적 측면을 중요시한다. 한편 평면규모에 따라서 가구배치태도가 다르게 나타나 40평형대 거주자는 30평형대 비하여 장식적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

네째, 가구사용행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용자특성은 평면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은 가족생활주기가나 부인연령 등의 가족특성변인 등이다.

이상의 결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평면규모와 직업, 가구소득변인 등은 서로 맞물려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평면규모에 따른 가구사용행태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나 직업계층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연구대상으로 다루었던 30평형대, 40평형대의 평면규모의 범위가 직업계층이나 소득계층 등을 차등화시킬만큼 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평면규모를 30평 이하와 50평 이상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가구사용행태 및 주요구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참고 문헌

1. 김미희,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생활양식; 평면규모 30평형대 40평형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2)
2. 김정규, "아파트 단위평면의 특성과 거주자의 주의식 및 주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8)
3. 백혜선, "아파트 평면유형에 대한 거주자 선호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4. 김영주,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아이덴티티

- 의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2)
5. 신영숙, “도시 중산층 아파트 거주 가구의 개성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2호 통권 40호 49-61(1992)
 6. 이연숙, 김미희, 오찬옥, 이숙영, 최수현, “주거공간과 수행위 및 주생활재와의 대응”, 연세논총 제26집 383-411(1990)
 7. 조성기, 김현수, “공동주택의 공간구성 방식에 대한 거주자의 주의식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0권 2호(1990)
 8. 조성희, 이경희 “집합주택 단위평면 디자인 결정요소의 수리적 분석방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3권, 제4권, 3-11(1987)
 9. 주거문화연구회 편역, 주거·문화·디자인, 신광출판사(1994)
 10. 함상우,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6)
 11. 홍두승, 사회조사분석(제2판), 다산출판사(1987)
 12. 홍두승, 김미희, “도시 중산층의 생활양식: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곡 학술문화재단 성곡논총 제19집 485-533(1988)
 13. 홍두승,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169-213(1983)
 14. Amaturio, E., S. Costagliola & G. Ragonne. *Furnishing and Status Attribut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Living Room, Environment and Behavior*. Vol.8, No.4.(1976)
 15. Berger, P., and B. Berger, and H. Kellner. *The Homeless Mind: Modernization and Consciousness*. New York: Vintage Books.(1974)
 16. Bonnes, “Cross Cultural Rules for the Optimization of the Living Room”, *Environment and Behavior* 19, 204-227 Ragonne(1976).
 17. Hummon, David M.(1989). *House, Home,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In *Housing, Culture, and Design*. Ed. Setha M. Low and Erve Chambe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8. Laumann, E.O. and Houser J.S.(1970). *Living Room Styles and Social Attributes; The Patterning of Material Artifacts in a Modern Urban Community*. in laumann, E.O. Siegel, P.M. and Hodge, R.W.(ed), *The Logic of Social Hierarchies*, Marcham, Chicago.
 19. Veblen, Thorstein(1953).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